

큰 창을 열어두고

STRA-OUT: 남서정 석다슬 2인전

[Middle Note Guide]

2023.6.1-6.24 씨스퀘어

안소연
미술비평가

0.

여름에는 소리도, 냄새도, 형태도, 색깔도, 더운 공기 속에 모든 것이 적당히 섞인다. 가로수의 짙은 이파리들과 길거리 술집에서 피우는 숯불 냄새가, 발에 차이는 돌맹이들과 아무데서나 자라나는 들 풀들이, 세차게 내리는 여름비와 세차게 튀어 오르는 물가의 개구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의 사건처럼 기억된다. 큰 창을 열어두면 매미 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더위를 몰고 온다. 서늘한 가슴에 땀이 흐르고, 방충망에 붙은 벌레는 보도블럭에 눌러 붙은 껌 자국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Middle Note Guide”라는 제목의 전시를 생각하면서 긴 여름의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이 익숙하게 떠올랐다. 향수의 (지속적인) 중간 향을 일컫는 “Middle Note Guide”라는 말은, 마침 봄과 가을 사이에서 세찬 여름비와 긴 여름 해를 겪어내야 하는 이 계절에 대한 공감을 비약적으로 이끌어낸다. 어쩌면 이 전시의 제목보다는, 지난 전시에 관한 두 사람의 기록에서 막연한 접점을 찾았던 게 어떤 (뒤섞인) 물질들로 축적된 시간 혹은 시차였을 지도 모른다. <눌러 접은 여름>(2022)을 그렸을 때, 남서정은 긴 여름을 지나고 있었을 테다. 석다슬은 <물놀이 수평선>(2022)에서 청색 점프수트의 채도를 허벅지 높이까지 올려 놓고서는, 해변의 모래에 파도가 남긴 나이트처럼 여름 바다의 시간을 가늠해 보고 싶었을 테다.

둘의 2인전 《Middle Note Guide》는, 회화와 설치로 압축되는 두 사람의 작업에서 각자가 보내 온 창작의 시간과 그것이 기억하는 “지속적인 순간들”을 떠올리게 한다. 말하자면, 하나의 개별적인 단어들이 이어져 어떤 문장으로 연결되는, 말들의 주름처럼 계속해서 접었다 펼치며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거대한 세계를 드러냈다 감추면서 어떤 순간들을 지속시킨다. 무더운 긴긴 여름 밤에 더욱 증폭되는 몸의 미세한 감각들처럼, 큰 창문을 열어두고 세계의 모든 것에 귀 기울이는 낮선 존재들처럼, 둘의 전시는 먼 데서 서서히 다가오는 형상들과 관계 맺는 한 사람의 추상적인 시간을 담아낸다.

1.

남서정의 회화에는 수행적인 제스처를 함의하는 동사형 제목이 많이 따라붙는다. “흠뜨리다”, “오르기”, “넘기”, “접어서 펼치기”처럼 제목에서 구체적인 동작이 빠르게 연상된다. <모서리 굴리기>(2022)와 <눌러 접은 여름>을 포함한 작업에 대한 작가노트에도 그는 “Unfolding Time: 시간 펼치기”라는 제목을 붙여놓았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개인전 제목은 《당기고 맺는 Pulling and Binding》(2023, 리:플랫)으로, 여느 때와 같이 어떤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 두 개를 병치해 두었다. 그 동사의 주어는 작가일테지만, 조금 더 그의 회화가 지닌 내막을 살핀다면, 회화라는 평면 공간(안팎)에서 “발생하는” 물질과 이미지들 간의 주고받는 힘의 관계를 특징하는 동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테다.

“회화를 통해 변화가 가진 에너지와 복합적인 시간의 겹을 담는다”고 말한 그는, 평평한 캔버스에서 펼쳐지는 회화적 순간을 이어나간다.[*작가노트 “Unfolding Time: 시간 펼치기” 참고] 색채로 가득 채워진 회화의 평면은 어느 순간에 이르러 힘이 작동하며 동시에 깊이를 지닌 “공간”으로 경험되고, (들뢰즈가 세잔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일종의 “감각의 덩어리”라 말할 수 있는 색채가 매개하여 화면 속 전이는 내밀하게 지속되는 듯하다. 이를테면, 색채가 (추상적인) “형태”로 전이되거나 혹은 (구축적인) “공간”으로 전이될 것처럼 유동적인 움직임에 따른 다수의 표면/평면을 파헤치게 한다. 그는 “어떤 명사의 형태를 깨고 다른 명사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사’이자 에너지”로서 “시간이 주는 변화”가 회화의 시간성을 구축한다고 말한다.[*작가노트 “Unfolding Time: 시간 펼치기” 참고]

한 쌍으로 구성된 <시차>(2022)는 얼마나 의미심장한가. 세로로 긴 두 개의 평면이 나란히 병치되어 있는 공간적 관계 속에서, 둘은 시차를 발생시킨다. 이때의 시차는 시간의 간극뿐만 아니라 시점의 간극을 중의적으로 함축하며 둘 사이에 액체처럼 흐르는 유동적인 움직임을 좇게 한다. 그것은 단지 색채의 조형적 관계를 따지는 일이기 보다는 색채를 보는 혹은 지각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둔 회화적 제스처와 직결되어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회화적 제스처[과거]가 통과해온 추상적인 시간에 대해, 그의 회화는 표면에 구축되는 색채와 흩어지는 색채 간의 섞임, 혹은 표면을 융합하고 있는 색채의 물성 너머 평면을 떠받치고 있는 색채의 깊이 간의 지속적인 침투, 이러한 회화적 공간에 대한 순간적인 보기(지각)의 “낙차”[미래]로 전이시켜 놓은 셈이 된다.

남서정은 캔버스에 유화물감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작업 방식과 종이에 파스텔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간혹 전시 공간의 창문을 지지체 삼아 얇은 종이나 아크릴 펜을 이용해 유화나 파스텔화의 연장선에서 추상적인 색채를 다루기도 한다. 각각의 매체에 따른 시간 감각과 더불어, 그는 색채의 밀도와 색면의 크기 등을 끊임없이 쌓고 수정하고 해체하고 덧바르면서 “미완의 상태” 혹은 “한시적인 상태”로서 자족하는 평면을 현재의 시간 속에 (멈춰) 세워 놓는다. 그는 한때 큰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 창문에다 종이에 그린 그림들을 (더덕더덕) 붙였던 적이 있다.[<A에게>(2021)] 방 안까지 깊숙하게 들어오는 채광은 그의 회화 속 색채들에 반응하곤 하지만, 그로 인해 그의 회화는 끊임없는 유예의 시간을 되풀이한다. 동네 개천가 고가도로 밑에서, 그는 “종이그림들을” 빛과 수면의 일렁임 사이에 걸어두고 때때로 그림자의 어둠 속에 잠기거나 빛의 환영 속에 사라지는 색채의 유동적인 현존을 일깨우곤 했다.[<여기 프로젝트>(2020-2021)]

이번 전시에서는 한쪽 벽이 큰 창으로 되어 있고 벽을 쓸 수 없는 전시 공간의 환경적인 조건에 대응하면서 평면의 회화를 공간 속에 펼쳐 놓기 위해 임시 가벽과 구조물을 활용했다. 그 결과, 건축의 벽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회화는 “임의의” 지지체와 결합하여, 그동안 회화 표면에 관한 유동적인 감각의 변환을 모색했던 것에 비하면, 예상했던 것을 넘어 꽤 정적이고 견고한 평면의 무게를 상상하게 해주었다. 하나의 흰 벽에 나란히 펼쳐 놓은 <흠뜨리다>(2023), <숨기다>(2023), <오르기>(2023), <넘기>(2023), <접어서 펼치기>(2023), <끝의 끝>(2022)는 제목이 느슨한 연결점을 시사하듯 어떤 힘에 의해 거대한 파노라마의 화면으로 융합될 것 같은 착시마저 일으킨다. 그 벽의 모서리를 돌면, 허공에 매달아 놓은 스크린 같은 가벽들이 마치 좌대처럼 회화의 평면을 중력으로부터 수직으로 견고하게 일으켜 세워 놓은 것 같아 내부가 물질로 꽉 찬 조각적 양감마저 느껴질 테세다. 세 개의 각목 구조물에는 (종이가 아니라) 합판에 그린 파스텔화가 창을 비스듬히 등지고 서있다. 그는 합판과 자신의 몸 사이에서 파스텔과 압축 목탄을 이용해 만들어 낼 수 있는 회화 표면의 층위, 말하자면 추상적인 제스처로 축적된 색채와 물질의 두께를 자꾸 살피게 한다. 그의 최근 회화는 (더) 큰 힘을 내포하며 (더) 단단해진 인상을 준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두께 밑에 봉인된 회화의 시간을 전

복시할 만한 평면/공간을 엿보는 것 같다.

2.

석다슬은 “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변하는 것,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걸 관찰하고 탐구하길 좋아한다”고 말한다.[*작가노트 참고] 예전 작업 중에 <모래 나이트>(2021)는 1채널 비디오 영상 작업으로, 1분 20초 간 스톱모션으로 움직이는 해변의 모래사장을 담았다.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풍경 속에서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퇴적과 침식을 반복하며 현실의 찌꺼기들을 박제함으로써, 마침내는 거대한 역사로서의 시간을 환기시켜 놓는다. 말하자면 “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변하는 것”은 현재의 느린 시간 속에 꾸물거리는 소소한 것들에서 시작해 지극히 원대한 시간의 굴레 속에 축적된 바위 만한 존재를 떠올리게도 한다.

<포스트 모던 나방>은 어쩌면 그러한 말도 안되는 대비, 극단적인 대척점에서의 만남을 끌어내는 삶의 역설을 강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얼마나 거창한가. 나방은 개념도 사유도 필요 없다. 밤에 불빛을 쫓아 날아다니는 나방은 그 윤곽선조차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희미하고 미약한 존재로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다. 석다슬은 무모할 정도로 그 둘의 무게를 저울질 하기 위한 궁리를 모색하다가, 기이한 개체들을 현실에 등장시키기 시작했다. 포스트 모던 나방, 거창한 과거의 수식어를 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시공간을 예언이라도 할 듯이 현재의 언캐니한 모순을 한껏 발산한다.

석다슬은 2021년부터 ‘포스트 모던 나방’ 연작을 시작했으며,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신작은 두 번째 버전에 속한다. 첫번째 버전은 수직적으로 서 있는 일자형 형광등에 점토로 만든 나방을 덕지덕지 붙여 놓은 형태로, 그의 말마따나 “정지된 나방과 시간의 지속을 보여주는 발광하는 빛의 조합”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삶과 죽음이라는) 기막힌 “시차”와 그 모순된 시간을 현실에 박제해 두려는 한 사람의 “쓸모없는” 노동/수행 앞에서 슬한 표정-혐오, 사랑, 불안, 슬픔, 분노 등-을 지우게 한다. 두번째 버전의 <포스트 모던 나방> 연작은 나방의 이미지와 LED 등이 하나의 형상을 구축하기 위해 동일시 되는 면모를 띤다. 그는 접었다 펼치고, 밀었다 당기며, 평형의 감각과 회전하는 감각처럼 어떤 힘의 균형 상태를 이루기 위한 길고 긴 노동을 감수한다. 그리하여 어떠한 뒤섞임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형상이 비로소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리듬에 귀 기울이게 한다.

<XXXX>(2015) 드로잉은 석다슬의 초기 작업으로, 이번 전시에서 <포스트 모던 나방> 시리즈들과 하나의 대구를 이룬다. 무명에 가까운 이 드로잉의 제목은 수많은 X의 함의를 포괄하면서, 그의 의도에 따라 “삭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위는 추상적인 “망설임”과 “감추기” 등의 의미를 교환하면서, 종이 위에 밤 하늘의 “달”을 쫓아 그것에 대해 “아는 바”와 “보는 바” 사이의 괴리를 날날이 기록했다. 그의 설명대로, “책에서 배운 달의 모습과 바라보는 달의 모습의 괴리로 달의 외양은 점점 추상적으로 변하”는 국면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석다슬은 여기와 저기, 소소함과 원대함,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 과거와 현재 혹은 현재와 미래 사이를 왕복하며, 둘 사이의 낙차를 메울 수행적인 행위로서 지난한 노동을 감수하면서 “불가능한 형상” 만들기에 몰두한다.

이번 전시에서 거대한 구조물에 매달려 있는 <XXXX> 드로잉 연작은 그것과 등진 큰 창문과 실내의 인공적인 조명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 빛을 쫓아 날아든 밤의 나방처럼 검은 화면의 흐릿한 윤곽을 흐릿한 경계에 두고 있다.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석다슬의 <포스트 모던 나방> 시리즈는, LED 등과 목재 구조물과 금속 선재로 조율된 일련의 균형 상태에 의해 미시적인 한 점으로의 한없는 몰입과 더불어 스펙터클하고 거시적인 우주적 세계로의 해방을 넘나드

는 감각을 제시한다. 정지되어 있으나 씩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나방의 날개, 거대한 힘에 의해 공전하는 달의 궤도가 불확실하게 제자리를 서성이고 있는 흔적들, 석다슬의 작업은 이렇듯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 혹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감각이 만나는 어떤 접점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미지의 경계에 있을 법한 힘의 관계를 증명하거나 감각의 전환을 극대화 함으로써, 그는 일상성을 지배하는 견고한 리듬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고 그것을 세심하게 조율한다.